

## 이달의 이슈 102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의 활용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jepark@krihs.re.kr

## 1. 창조경제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본 공간의 중요성

창조경제는 2000년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지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피터 코이(Peter Coy)는 창조경제를 위한 진정한 자산(The Real Asset)이 아이디어임을 강조하며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듬해인 2001년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의력이 중시되는 연구·개발, 디자인 등 15가지 창조경제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처럼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음에도, 뭔가 그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데, 2010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 2010)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 2010년 보고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없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창조경제’는 이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3), 도시재생실증연구단/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3세부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실증)(2014~현재),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 연구(2015) 등

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주관적인 개념임을 명시하였다. 2013년 보고서는 한 층 더 나가 Michale Keane(2013)의 표현을 인용하여 창조경제가 '신비스러운 존재(mysterious animal)'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어떤 단어를 자주 접하면서도 그 개념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왜일까? 이는 그 단어를 들을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 혹은 손에 잡히는 명확한 그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창의력에 의해 무엇이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이기에 우리가 명확히 떠올리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방향을 잃은 노력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여러 이미지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찾고 그 의미에 관해 자세히 검토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창조경제를 수식하는 키워드인 '창의성', '융·복합화', '시너지 효과'의 세 가지에 주목해 논의하고자 한다. 각각의 키워드가 지닌 의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 보게 된다.

우선 창의성에 대해 살펴보자.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환경에서는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런던, 뉴욕, 파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역사적 건축물, 박물관, 공원이 곳곳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원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도 창조계층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선호하는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창조적 아이디어의 융·복합을 이루어내려면 다양한 분야가 한 장소에 존재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가 특정 산업의 대규모 특화보다는 산업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가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도심을 재조명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심은 오랜 기간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축적된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심은 융·복합화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적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도시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즉, 특정 거점 공간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되 그 공간이 주변 공간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역 개발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 거점 공간이 주변 공간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한 지역에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주변 지역까지 파급되기가 쉽지 않다.

## 2.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도시재생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창의성’, ‘융·복합화’, ‘시너지 효과’는 결국 창조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고려할 수 있다.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 또는 주체 간 융합과 연계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과, 우리가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로부터 알 수 있었던 교훈 사이에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나라와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건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논의의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도시재생 방식을 활용한 사례로 캐나다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와 세계적인 R&D 허브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 원노스(One North)를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원노스는 과거 영국군 주둔지였던 지역을 첨단 융·복합 산업 단지로 탈바꿈시킨 사례이다. 활용도가 떨어진 지역에 창의성과 융합을 모토로 새로운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싱가포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성공한 사례이다. 원노스는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를 한곳에 불러 모은다는 전략으로 바이오·메디컬 연구기능 중심의 바이오폴리스(Biopolis),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 중심의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 쇼핑·문화·교통 기능 중심의 비스타 익스체인지(Vista Xchange)를 조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원노스 지역 개발의 핵심은 첫째, 창조 인재를 위한 세계 최고의 환경 조성, 둘째, 분야 간 융·복합 시도, 셋째, 단계적 연계 개발을 통한 개발 효과 극대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노스 개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세계적 전문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 원노스가 있는 부오나 비스타 MRT역에 내

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복합 쇼핑·문화공간인 비스타 익스체인지(Vista Xchange)이다. 거대한 쇼핑몰을 구경하고 나오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청사가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군데군데 놀이터와 공원들이 위치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회색빛 산업단지 이미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원노스를 있게 한 차별화 전략이다. 창조 인력들은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이 있고 주변에 여가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와 어메니티(Amenity)를 필요로 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원노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성이 완료된 바이오폴리스의 생태계 조성 방식을 통해 공간의 융·복합화를 활용해 어떻게 분야 간 융합을 이뤄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바이오폴리스는 건물 7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 분야 간 교류, 융합을 의도에 둔 상징적 표현이자 실질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직종 특성상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장시간 실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학회나 세미나 같은 공식적 행사만이 타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기회이다. 그러나 바이오폴리스에서는 예외다. 바이오폴리스 조성 시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하였다. 개방형 공간에서 고가의 실험 장비, 연구실, 기타 연구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도치 않은 분야 간 융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원노스의 단계적 연계 개발도 살펴볼 만한 주제이다. 원노스는 바이오폴리스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주변의 싱가포르국립대, 국립대학병원, 사이언스 파크와 연계되어 공간의 완결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이곳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임상실험을 하면 곧바로 화이자, 노바티스 등 25개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투어스 산업단지(Tuas Medical Park)에서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각 분야 간 보이지 않는 촘촘한 연계망이 짜여 있어서 분야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캐나다의 그랜빌 아일랜드이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과거 창고, 공장 지대였던 지역을 문화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창조공간으로 변모시킨 곳이다. 이곳에는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높은 굴뚝, 공장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지금은 예술가들의 작업실, 분위기 좋은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핵심 개발 전략으로는 첫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문화의 활용, 둘째 점진적인 변화의 유도가 있다. 과거 공장지대였다는 특성 때문에 이곳에 들어서면 이색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무엇 하나 같은 것 없는 이곳의 건물과 활동에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 군데군데 있는 소형

선박 수리점, 카누숍, 양조장, 퍼블릭 마켓, 아트 씨어터, 공방, 미술대학 등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각각이 제 기능을 하며 살아 있는 조직처럼 융합하기도 하고 독자성을 가지고 로컬 브랜드로서 대표 상품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축제 등의 문화행사에서 각 기능의 융·복합화는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지금과 같은 명소가 되기까지 이 지역이 갖는 기존의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곳만이 갖는 개성과 장점을 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알리고 서서히 변화시켜 나갔다. 공간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고 광장을 끼고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제격인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이 그 구심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과일, 채소, 빵 등 식재료를 구경하며 사가는 이곳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확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는 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으나, 의도적으로 문화 기능을 도입하고자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았다.

### 3. 창조경제, 창조 서울 구현을 위한 제언

최근 들어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G밸리, 신홍합 밸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성수동 수제화 거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갖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가는 데 한창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하게 될 서울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들이 해외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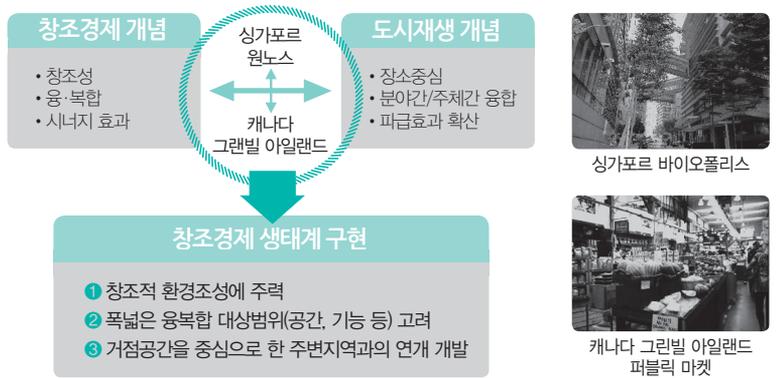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기능)가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조성 과 분야 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마련에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은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 여가, 교육,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진정한 창조경제 생태계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창조 인력이 선호하는 창조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창조적 생산은 업무·작업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주거와 여가의 공간에서도 생겨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계획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시재생 공간이 반드시 대규모의 잘 정비된 공간일 필요는 없다.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성과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면 오히려 창조 인력들은 이를 더 선

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 곳곳의 문화적, 공간적 특성에 좀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개성을 살려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간에도 의도하지 않은 융합의 산출물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가 갖는 다양한 산업, 활동이 장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융·복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도시재생을 수행함에 각 지역이 갖는 기존 기능을 무시한 채 새로 수립된 도시계획 목적에 따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능 도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지만, 기존 기능들을 배제한 채 신규 도입된 기능이라면 상호 간에 활발한 융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들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거점공간 개발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고 단기에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가급적 소박한 규모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다음 이를 거점으로 어떻게 효과를 파급시켜 나갈 것인지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거점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기현·김현식, 2013,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 김동주·유재운 외,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추 도시권 발전과 도시재생 융합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창조경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4.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김민주·송희령 옮김, 2011, 『제3차 세계 리셋』, 비즈니스맵
5. 박경현·류승한·박정호, 2013, “창조산업 집적현황과 지역연계전략”, 국토연구원
6. 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 이진원 옮김, 2011, 『도시의 승리』, 해냄
7. 유재운, 2013, “창조경제의 공간적 의미와 도시재생”, 『월간국토』통권 380호